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아티스트 토크
이세준 <무엇을 볼태울 것인가?>

일시 : 2015년 12월 12일 (토) 오후 4:00 - 5:30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패널 : 안광휘, 장종완, 한성우

김인선 : 안녕하세요. 이세준 작가의 개인전을 맞이하여 아티스트 토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른 아티스트 토크와 다르게 동시대 작가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윌링앤딜링의 작가들이나 기획자들과 작업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더 비평적으로 했다면 오늘은 '같은 세대의 작가들이 어떻게 서로의 작업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콘텐츠가 나올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재밌게 이야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윌링앤딜링을 운영하고 있는 김인선입니다.

이세준 작가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세준 작가는 홍대 회화과와 대학원을 나오셨고 꾸준히 작업 활동을 하셔서 이번이 세 번째 개인전입니다. 작업의 흐름을 보면 항상 높은 채도와 복잡한 화면구성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해왔던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전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거대한 캔버스와 오른쪽 공간의 작업들은 화면 안에 초현실적인 혹은 무의식 속의 세계같이 현실과는 다른 풍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돌아보시면 화면 하나하나가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을 포착해서 그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큰 구성으로 이 전시가 이루어져있고 그렇게 된 경위나 작업의 방식은 작가에게 자세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널로 한성우 작가님, 장종완 작가님, 안광휘 씨가 참여해주셨습니다. 한성우 작가는 저희 갤러리에서 PT&Critic으로 개인전을 하였고 페인팅이라는 매체를 진지하게 다룹니다. 재료의 물질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화면을 구성할 때 만들어지는 공간과 그 안에서의 오브제들에 대한 연구를 철저하게 하시는 작가입니다. 장종완 작가는 저희와 2014년에 개인전을 했었고 섬세한 페인팅 작업을 하십니다. 한성우 작가는 실제 있는 풍경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온다면 장종완 작가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찾고 여행을 하면서 찾아낸 우스꽝스럽고 기념비적인 오브제들을 활용하거나 또는 인터넷 웹상에서 볼 수 있는 재미난 이미지들로 구성하면서 화면 속을 유머러스하거나 시니컬하게 표현하면서 비현실적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만들어집니다. 안광휘 씨는 서양화과 4학년 학생으로 이번에 졸업전시 준비로 바쁘신데 저희 행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작업 활동을 하기 직전에 조금 객관적이거나 관망하는 자세로 전시를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 모셨습니다. 바로 밀 세대의 작가로서 이 작업에 대해 어떤 부분은 생소하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아래 세대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초대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를 마치고 이세준 작가님이 먼저 설명하시고 이후 패널 분들이 작업이나 전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고 관객들의 질문을 자유롭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준 :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처음에 어떻게 말머리를 열어가지루하지 않을지 혼자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남의 작업을 보는 것이 취향에 맞으면 금급하고 재미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을 수 있어서 짧게 말하는 것을 못하지만 짧게 말 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 나무 등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그린 것 같나요? 작업을 하면서 어떤 것을 그려야할까,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작가가 되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주제로 탐구해 볼까가 저에게 큰 화두였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게 이야기하거나 1500자로 자기소개서 쓰기 이런 것을 잘 못합니다. 어떤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봤더니 이것저것 말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계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있고 어떻게 서로 관계되어 있을까에서 작업이 출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슬픔, 기쁨, 괴로움 등 여러 가지 감정들을 동시에 느끼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서 시작해 이 세계가 무엇일까라는 거대한 담론을 한 화면으로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제가 보는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색, 구도, 소재들로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풍경화 같기도 하지만 정물, 사람도 있고 구성적인 그림이지만 추상적인 요소들이 있고 추상화라고 하기에는 구성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카테고리화 되지 않는 모호한 지점을 부유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추상화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사람, 물고기, 의자 등 구성적인 요소가 많은 재현의 그림처럼 보이고 더 가까이 보면 다시 추상화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김인선 : 작업에서 풍경을 전체적으로 휘감고 있는 독특한 형식적 스타일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세준 : 다른 작가들과 다르다고 얘기되는 부분이 색, 그림을 여러 개 붙여서 크게 만드는 것, 질감입니다.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다양한 질감을 스펙트럼 넓게 쓰고 싶었습니다. 매끈매끈한 느낌의 질감과 거친 질감, 오일을 많이 사용하여 흐르는 느낌, 번지는 느낌, 두꺼운 물감 덩어리가 그대로 붙어있고 크고 작은 붓 터치가 공존하는 이런 식으로 폭 넓은 표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키워드 중 하나가 이질적인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같이 있는 요소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화면 안에서 공간이 변화합니다. 밝아늘, 우주 같은 공간이 늘어나 땅으로 변하기도 하고 땅이 구름이 되어 하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뒤에 있는 배경이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다의적으로 변화되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들을 찾을 수 있게끔 의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물체들이 놓여있는 것이 일반적인 3차원 공간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 관념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었습니다.

안광휘 : 아티스트 토크를 준비하기 위해 검색해보다가 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크로마필리아’라는 단어와 반대말 ‘크로마포비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호하고 상황이 왠지 낯설게 구성된 풍경들을 만들고 계시는데 다양한 색들을 사용하는 것을 그러한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세준 :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표현주의적인 그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세계와 닮았다고 생각하는, 세계를 환유하는 규칙들을 만듭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같이 있는 것이 제가 느꼈던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계는 위대함과 숭고함, 추악함과 더러움, 끔찍한 것들이 섞여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 그림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그것들을 그림의 구도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소재들, 색의 대비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볼 수 없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색들을 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놓은 규칙과 형식들을 가지고 수행하는 듯이 그림을 그리게 된 작업입니다.

관객 : 내용적인 것보다도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화면 자체가 크고 스케일감이 있는데 작가님은 그림을 그릴 때 어디에 중점을 두시는지, 왜 이 곳에 배치했는지, 그림 안에서 텔레토비가 보이는 이유들이 궁금합니다.

이세준 : 우선 크기가 큰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은 2번째에 위치해있는 하나의 그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그릴 때는 그것이 주인공이지만 여기에 다른 그림을 붙여 연결해서 그리게 되면 그 첫 번째 그림은 주변부가 됩니다. 언제나 제 그림은 주변부를 상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심이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다른 것의 주변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확장시켰습니다. 태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구조적인 환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그림이 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크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텔레토비, 뇌, 배라풍선, 도라에몽 등의 소재를 선택하는 것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배라 풍선은 분단된 한국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인 것으로 내러티브가 두터운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도라에몽은 플랫폼하고 가볍고 의미나 구조적으로 얇은 소재여서 선택한 것입니다. 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두터운 것과 얇은 것을 같이 놓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소재에 대한 배치는 아름답다고 하는 나만의 기준, 조형성을 찾아서 배치합니다. 8개의 그림들에서 하나의 그림만을 가지고도 단독적인 그림이 될 수 있는 구도를 짜고 싶었습니다. 8개의 그림을 하나하나 떼어서 보면 그 안에서 그림의 강약이나 리듬감이 어떻게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리듬감을 주는 동시에 전체적인 하나의 화면이 뻗을 때 세련롭게 나오는 아름다움을 좇고 싶었습니다. 그런 시각적인 부분에서 움직이는 것이 큰 것 같습니다. 소재를 드로잉한 것들을 수집하여 배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선 : 이세준 작가님이 갤러리에 설치하실 때 갤러리 높이보다 높은 작업을 가지고 오셨고 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셨던 것과 이전의 작업들도 공간 안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유롭게 공간을 구성하는 것에서 평면을 다루지만 공간을 필수적으로 고려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회화를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이세준 : 보는 사람에게 그림이 쏟아지는 느낌이 들게 하고 싶어 그림을 기울여서 걸었습니다. 풍경화의 과정은 가장 뒤에 있는 레이어 하나를 그리고 점점 앞으로 레이어가 쌓이면서 원근법이 됩니다. 저는 반대로 가장 앞에 있는 것을 먼저 그리고 남은 공간에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채우는 식으로 공간을 구성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튀어나와 보이고 붓 터치도 두껍고 채도가 높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쏟아지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서 기울여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기울인 그림이 아니라 12개 정도를 붙여 길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중간에 위로 꺾이기도 하는 그림들은 한 시점에서 그림을 볼 수 없고 계속 옮겨 다녀야 그림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 명의 개별자들은 이해할 수 없고 여러 명의 공통적인 시선을 모아 이 세계를 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정된 공간의 시선으로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없게끔 다시점으로 되어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페인팅이라는 것이 평면이지만 평면 안으로 들어갔다와 외부로 나오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연극을 보면 관객과 갑자기 대화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미지 속으로 들어가서 보다가 물질을 마주하게 되는 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림 안의 세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밖의 세계와 안의 세계를 아울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성우 : 결정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것들을 한 가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소극적인 태도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과정 자체를 그림 안에서 과정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 흥미로웠습니다. 그 경계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대해서 힘을 주어 말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고민이나 말하기 방식,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떠내려 오는 것들> 작품이 어떻게 보면 작가의 입장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작가가 어떤 위치에 있을까 고민하고 내 속도보다 이미지의 속도가 빠르고 한 점에 서서 끌려오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회화적인 기법 안에서 대비되는 것들을 충돌시키고 섞는 것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모호함이라는 것을 표현해내는 방법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전시의 또 다른 그림들을 봤을 때 현실적인 풍경을 다룬 부분도 모호한 상황, 모호함이 그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풀어내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대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 과정이 달라지는 부분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세준 : 전시를 다시점과 하나의 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전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개인전에서는 구조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장면을 그린 그림들을 보다가 다시점의 그림을 보게 되면 화면 안에서 그 장면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전시 제목이 '무엇을 불태울 것인가'인데 실제로 작업실에 불이 나서 그림이 많이 타었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업실을 제대로 쓸 수도 없었던 상황들이 딱딱뜨리면서 저런 작업들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불태웠는가>가 불타던 그림인데 탄 부분을 덧붙여 그리거나 이미 그려진 이미지를 물감으로 지워 다시 그렸습니다. 복원인 동시에 파괴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불태울 것인가는 내 인생을 앞으로 어디에 불태울 것인가, 과거의 어떤 것을 지우고 싶은지를 내포하는 양가적인 질문입니다.

장종완 : 저는 2012년도에 SeMA 프로그램을 통해 이세준 작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작업과 지금 작업의 변화과정을 지켜보면서 페인팅이지만 일반적인 설치와 다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를 보자마자 '이미지의 쓰나미가 몰려오는구나, 푹 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설치를 해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오늘 준비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색깔도 뭔가 탕화 같은 느낌이 강했고 생경하긴 하지만 작업이 비린 생선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전시를 보면서 비린내가 잡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업실이 불 난 것으로 인해 기술적인 변화나 콘텐츠 등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세준 : 그림이 불탄 것은 굉장히 큰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색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면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미술이나 영상매체를 다루는 작가들은 사라지는 것에 유연한 사고를 갖고 계시지도 모르겠습니다. 페인팅이라는 매체는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그림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영원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후에 하나의 그림을 그릴 때 더 소중하고 에너지를 깊숙이 넣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많이 그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어서 그것이 이미지로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훼손된 이미지>가 불이 난 직후에 그린 그림입니다. 물감도 떨어져있고 커다란 붓 터치도 중간에 지나가면서 이미지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림을 복원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뜯으려고 하다가 일부러 손상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반달리듬적으로 물감을 뿌리면서 이미지를 중화시켰고 그러면서 깨져버린 이미지인데 오히려 주제를 더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태도의 변화들이 색깔을 변하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장종완 : 과거 작업에서는 추상적인 이미지들의 조합 차이가 컸습니다. 최근 작업들은 그런 비린 것들이 많이 중화되고 세련되어진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이미지들의 조합 차이가 덜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치를 통해 다른 회화들과 차이를 주듯이 앞으로 어떤 차이를 줄 것

인가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세준 : 지인들이 전시를 보고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간에 해결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답을 찾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더 격렬하게 대비가 되는 것들, 큰 붓과 작은 붓을 동시에 쓰면서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편집증을 가진 사람과 윌렘 드 쿠닝이 같이 그린 듯 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일부분은 아주 세밀한 묘사가 재현되어 있고 두껍고 표현주의적인 느낌이 뒤섞인 이미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지들은 드로잉을 많이 그린 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는 계획하여 그리는 반면 색깔은 그림을 그리면서 거의 직관적으로 많이 발라집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기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합니다. 대비를 중심으로 표현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휘 :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면서 형식적, 내용적 변화를 추구하는 지점이 있었지만 토크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작업들과 비교했을 때 내장 같은 것이나 표현적인 부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시그니처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건지 그렇다면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빠르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세준 : 처음 그림을 그릴 때는 내 것이라는 게 없고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었습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남들과 똑같은 성장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었기에 '나는 이런 작가야.'라고 최면을 걸면서 인위적이었습니다. 의도적이었던 아니었던 반복되어 나오는 것들은 저와 닿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작가이지만 화면 속 반복되는 것들은 저에게 유의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탈락되어 떨어져나갑니다. 그림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은 더 자유롭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정체성도 뚜렷하지 않은데 이것을 해도 괜찮을까, 정말 내 것일까.' 이런 생각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다보면 내 것이 아닌 것은 연기할 수 없게 됩니다.

김인선 : 다른 작가님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장종완, 한성우 작가만의 특징과 니앙스는 각각 다 존재하고 그것을 유지해가는 태도나 바뀔 때의 태도는 많은 작가들이 고민할 것입니다.

한성우 : 반복이나 시그니처라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비판적인 니앙스가 실려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회화라는 매체의 취약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반복이나 시그니처가 되면 왜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이세준 작가의 작품을 봐도 같지만 다른 것들이 흥미롭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세준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것들에서 바뀌어나가는 과정이 회화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다른 매체보다 속도가 더디다는 생각을 스스로 작업을 하면서 많이 합니다. 내가 이것을 고집하

는 것이 태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작업을 하고 다른 작가들의 회화 작업을 보면서 계속 이 작가가 놓지 않고 있는 모티브들, 반복되는 것들이 쌓이고 전시의 형식으로 묶였을 때 이 작가의 회화적인 태도가 생긴다고 봅니다. 내가 감각적으로 좋아서 따라해 보는 것도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는 방식, 쉽게 해올 수 있는 것이 무의미적인 반복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사람만이 가지는 독특함,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장종완 : 비유를 하자면 이세준 작가가 된장찌개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하는데 매년 육수를 바꾸기도 하고 재료를 다양하게 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세심한 관객들이 작은 변화들, 색깔의 변화라든지 디테일한 것들을 알아봐주실 때 큰 고마움과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이세준 작가님이나 저희 세대에게 시그니처라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은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세준 작가가 수직적으로 파고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광휘 : 평소에 드로잉을 많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세준 : 요즘은 못했지만 첫 전시를 할 때는 드로잉을 많이 했습니다. 천 장이 넘는 드로잉들을 조합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림 방식의 차이일 수 있는데 과거에는 드로잉을 통해 저의 스타일로 바꾸는 것이었다면 요즘은 사진들, SNS의 웃긴 이미지들, 뉴스에 보도되는 이미지들을 모읍니다.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찍어내는 드로잉, 다른 의미의 드로잉을 많이 합니다.

장종완 : 전시를 볼 때 이 작가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이미지에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콘텐츠는 무엇인지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불태웠는가>는 이세준 작가 관심사의 집합인 것 같고 작은 작업들은 관심사를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길을 걸어 다닐 때 사진을 찍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세준 : 특정한 생각을 들게 하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겪었을 때 내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풍경들은 많이 수집하는 편입니다. 관심사에 관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는 무엇을 불태웠는가> 작업에서 관심사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장종완 : 관심사를 알게 되기보다는 한 번에 많은 것들이 보여서 정신이 없는데 약간 아쉬운 것은 관심사에 대한 기록물을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세준 작가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식물이나 우주인데 정확하게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세준 작가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세준 : 강박적으로 무언가를 저장하는 태도를 정신병리학적으로 저장강박증이라고 합니다. 물건에 집착하는 편은 아니지만 지식에 대한 강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계가 생겼는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천문학이나 물리학, 역학, 진화생물학 등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사들을 넣어두었지만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상 화면에 책에서 발췌한 글, 저장강박증, 러버덕, 도시의 구멍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김인선 : 관심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더 이상 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콜레라마’ 같은 퍼포먼스는 어떤 생각으로 하신 것인지, 그런 특이한 부분들이 본인의 관심사와 어떻게 맥락이 같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세준 : ‘콜레라마’는 인디음악하시는 분과 함께 구탁소라는 공간에서 올 8월에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작가들이 운영하는 작은 공간인데 특정한 직업가와 예술가를 연결시켜주는 전시 기획이었습니다. 8월에는 음악가와 미술가, 페인터와 자립음악가가 같이 전시를 해도 좋고 공연을 해도 좋다고 하셔서 이세준이 가수로 데뷔하는 프로젝트를 해보자, ‘콜레라마’라는 저를 소재로 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그림들이 주인공이고 저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일 뿐인데 그런 부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콜레라마’는 나를 재료로 내가 주인공이고 콜레라마라는 가상의 인격체를 만든 작업입니다. 관심사에서 이어져오는 것들은 안광휘 작가님이 말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작업에 활용하기 위해 공부를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수집해놓으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구조들에 대한 것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안광휘 : 학교 다니실 때도 페인팅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세준 : 학교 다닐 때는 회화 이외에 사진, 설치 등을 했었습니다. 금속으로 작은 박스를 만들어서 전구를 내부에 넣고 완벽하게 빛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전등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존재를 알 수 없고 그들의 존재여부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글을 읽고 여기 불이 켜있든 안 켜있든 동떨어진 것을 만든다면 나와 어떤 연관을 가질 수 있느냐의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장종완 : 그림을 잘 그리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세준 : 제가 느끼기에 나이브하게 ‘잘 그린다’라고 할 때 감각적인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장종완 작가님은 구조적으로 탄탄한, 감각적인 것 보다는 구조적으로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는 그림입니다. 일반적으로 회화과에서 잘 그린다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그린다는 것이 좋은 그림의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좋은 그림의 조건

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감각이 좋다고 해서 좋은 페인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광휘 : 캔버스가 확장되는 작업을 하시는데 완성이 되었다고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이세준 : 완성된 것은 없다는 전제를 두기 때문에 완성이라고 느끼는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를 모두 표현하는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세계보다 더 커져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처럼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세계를 그려내기 위해 그림을 한 점만 그려도 주변 여러 가지 그림들의 모퉁이라고 느껴지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림을 확장하는 의미입니다. 완성 자체는 어떻게 보면 덜 중요한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렇게 될 수 없으니 제가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정도의 이해가 아니라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하는데 이미 발아한 지점에서 태생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출발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난 실패했지 않느냐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그림들, 이미지들이 꿈틀꿈틀 대면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객 : 전시를 아직 다 보지 못했지만 다양한 지식들이나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알려고 하다보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것이 화면에 표현했을 때 저는 정신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포인트가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터넷 즐겨찾기를 해놓는 것처럼 지식들이 널려 있다는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세준 : 포인트가 없다는 것은 학교 다니는 동안 자주 들었던 이야기이고 이 작업이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였습니다. 나라의 사람은 이야기를 축약해서 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볍고, 즐겨찾기 같고 정신없는 것들을 이야기 하고 싶었기 때문에 포인트가 없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느끼셨다면 제가 잘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인트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관객이 가져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면 깊게 알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은 받은 긍정하고 받은 부정합니다.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의외로 전혀 다른 것과 결론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야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한 개만 파는 것보다 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것들을 본 시야가 넓은 사람들의 작업들이 훨씬 재밌기도 합니다.

관객 : 그림을 복원하면서 더 추가된 것이 있나요?

이세준 : 그물림이 두껍게 있어서 마르지 않은 물감들은 채도가 떨어지게 되었고 불이 있고 스프레이가 있는 그림들은 추가된 것입니다. 불타고 있는 장면들은 그물림을 가리기 위해

그린 것입니다. 그려진 대상이 내가 가리려고 하는 대상과 똑같다는 지점이 재밌었습니다.

관객 : 그려진 인물들 중 이목구비가 가려졌거나 안 그려진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세준 : 일부러 어떤 사람을 그럴 때 표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목구비를 그린 것도 있고 얼굴만 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나 표정을 강조하지 않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는 사람들이 상상해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인선 :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가하면 벗은 사람도 있는데 이런 인물 표현에서의 패턴이 다른 느낌입니다. 일부러 구분하셨나요?

이세준 : 일부러 구분했습니다. 칼 용이 말한 원형적 인간으로서의 인간, 즉 인류로서의 인간을 그리고 싶어서 나체로 그렸고 그리는 모양들은 내장의 질감을 참고하여 배치했었습니다. 그런 식의 패턴화로 그렸었는데 개인으로서의 인간도 필요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야 하는데 인류만 말하는 느낌이 들었고 층위가 다른 인간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는 인간들을 등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관객 : 화환이 많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세준 : 작업실 가는 길에 화환이 있었는데 화환의 형태가 예뻐습니다. 복잡함, 색 배치에 재미를 느껴야겠다 싶어서 더 그린 것이었습니다.

김인선 : 코멘트나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배우고 스스로 위안이 된 것이 갤러리가 하나의 특정 방향성을 만들기보다는 여루가지를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성격의 공간임을 만들어야 하는지 생각 하면서도 오늘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파는 것보다 여러가지를 접해보고 감정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작가들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신 작가님과 패널 분들 감사합니다.